



# “잠시만요! 문화재 밟고 지나가실게요” 무지한 공무원 무례한 후손들

### 무등산 입석대·서석대 인근 ‘석학’ 등 석조문화재 발견

### 광주시 등산로 정비 한다면

### 탐방로 돌계단 사용 훼손

보존해야 될 무등산 내 석조문화재가 탐방객 돌 계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문화재 관리 마인드’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허술한 문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 18일, 무등산 입석대~서석대 탐방로에 위치한 ‘석학’을 탐방객이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일 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석조 문화재 ‘석학’(石確·돌확) 2개가 무등산 입석대(해발 1017m)부터 천왕봉(해발 1187m)에 이르는 등산객

탐방로의 돌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무등산 장봉재~서석대 구간에 6억원을 들인 ‘주상절리대 주변 정비사업’ 과정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석조문화재인 ‘석학’을 돌 계단의 일부로 썼고, 등산로 조성을 위해 원래 있던 위치도 임의대로 바꿨다. 석학은 현재 돌계단 중간에서 등산객들에 의해 훼손되고 구멍에는 쓰레기가 가득 찬 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석학은 돌을 파내어 만든 그릇으로, 삼국·조선 시대 보리나 마늘을 넣는 접시에 허술한 문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이 탐방로 일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발 1050m 지점에서 석학 2개(직경 왕봉(해발 1187m)에 이르는 등산객

다. 연구소측은 또 토기·기와·분청사기 조각 등도 이 일대에서 발견했다.

이 같은 견해와 별도로 연구소는 광주시와 향토문화개발협의회가 지난 1998년 제작한 책자 ‘무등산(문화유적조사)’, 화순군이 2002년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입석대 인근에 절터가 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점 등을 중시, 문제의 석조문화재가 석학이 아닌 절을 세우는 대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같은 점을 토대로 석학이 ‘해발 1000m가 넘는 무등산 정상에 사람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문화재’라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다만, ‘석학’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굴 지역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무등산 입석대 일대에

서 발견된 문화재가 보존 조치 없이 고스란히 방치되면서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국립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방안이 없다면 무등산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가 발견되기 전에 사라져버릴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입석대 인근 절터 기록 등이 존재하는 여러 문건이 존재하는데도, 2004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과정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누락하는가 하면, 충분한 문화재 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등산로를 만들면서 돌의 위치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8분 해질 17시 49분 달출 22시 34분 달정 10시 02분

**강추위 시작**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 높게 치겠다.

광주	구름많음	-4/1℃
목포	구름많음	-3/0℃
여수	구름많음	-2/2℃
나주	구름많음	-6/1℃
완도	구름많음	-2/2℃
구례	구름많음	-4/1℃
강진	구름많음	-4/1℃
해남	구름많음	-4/1℃
장흥	구름많음	-4/1℃
순천	구름많음	-2/2℃
영광	구름많음	-5/0℃
광도	구름많음	-1/1℃
전주	맑음	-4/1℃
군산	맑음	-3/0℃
남원	맑음	-5/0℃
혁신도	구름많음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저수 동파저수 뇌졸중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목포 04:55 17:17 19:11 22: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2:02 00:00 05:41 18:0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날씨						
최저/최고	-5/4	-4/6	-2/9	5/9	3/6	-3/7



**황사에 덮인 광주 도심**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바라본 광주 시가지가 황사에 뒤덮여있다. 올해 두번째 덮인 황사로 인해 이날 광주 미세먼지 농도는 PM10 농도는 133µg/m³, 황산도는 194µg/m³까지 치솟았다. 전남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는 '약간나쁨'이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섞이면서 오후 1시부터 광주 등 호남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는 '나쁨(120µg/m³~200µg/m³)' 수준으로 격상됐다. /나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학교급식 종사자 10명중 8명 소음·주방 고열에 시달린다

광주지역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소음과 주방 고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광주시교육청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학교 급식실 급식전담인력 근무환경 개선연구'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소음과 고열, 세척제에 의한 피부·호흡기 질환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종사원 등 광주지역 학교 급식전담인력 2300명 중 161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급식실의 소음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80.3%는 각종 조리기구 가동으로 인한 고열로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81.5%는 사용하는 세척기 등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도에 대해서도 76.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또 80.3%는 각종 조리기구 가동으로 인한 고열로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81.5%는 사용하는 세척기 등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 정도에 대해서도 76.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고법·지법

### 형사사건 증인지원실

### 지방에선 처음으로 운영

광주고등·지방법원이 지방에서는 최초로 형사 사건 증인지원실을 마련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일 “지난 13일 법정동 105호에 증인 지원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인 지원실은 형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위한 휴식·대기공간으로 서울고등·중앙지법에 이어 처음으로 운영된다.

전담 직원 증인지원관이 상시 근무하며 증인 신문절차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벽걸이 TV 2대와 컴퓨터 등이 설치됐다. 증인내용에 관한 상담과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된다.

법원은 각 형사재판부에서 증인 소환장을 보낼 때 이용 안내서를 함께 발송해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고등·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법정동 205호실에 특별 증인지원실과 화상 증인실을 별도로 설치해 성폭력 사건이나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 증인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경찰청, 광주·전남 총경급 인사

### 북부서장 김학남

### 목포서장 안동준

### 112종합실장 총경급 격상

경찰청은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장에 김학남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발령하는 등 광주·전남을 비롯, 총경급 358명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를 단행했다. 치안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장을 총경급으로 격상,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번 인사로 안동준 경무과장이 목포서장, 하태욱 보안과장은 여수서장, 우형호 치안지도관은 순천서장, 백혜웅 경비교통과장은 영광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이성순 치안지도관은 화순서장, 노규호 치안지도관은 장성서장으로 부임한다.

박석일 광주 북부서장은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최정환 영광서장은 광주청 보안과장, 박영덕 장성서장은 광주청 112 종합상황실장, 김영창 광양서장은 광주청 경비교통과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광주청 경무과장에는 이수경 경기청 치안지도관이 맡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노재호 경무과장이 경대 지방이전전담장으로, 박우현 홍보담당관은 무안서장, 이우진 경비교통과장은 나주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삼동 무안서장은 전남청 홍보담당관으로, 정재윤 여수서장은 경무과장, 채수환 화순서장은 전남청 112 종합상황실장, 이명호 나주서장은 경비교통과장, 김군 구례서장은 보안과장, 임광문 목포서장은 정보과장으로 각각 발령됐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총계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지정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가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친환경다원  
작설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222-2902, 3973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